

사회

1,096세대 출퇴근 車 겨우 500대?

광천동 옛 송원학원 부지 아파트 교통량 과소 평가 논란 터미널·백화점 등 다중 이용시설 몰려 교통대란 불보듯

광주지역 최대 교통 정체지역인 광주 서구 광천동 옛 송원학원 부지에 내년 초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서 기아로나 광운로 등 인근 도로의 교통량이 급증,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일대에는 이미 광주중합터미널, 신세계백화점, 유스퀘어,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등 다중이용시설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무진로가 사실상 신도심과 구도심을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아파트 단지로 인해 주변 교통소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아파트 단지는 주출입구를 기아자동차 정문과 마주보고 하고, 단지 북쪽에 부출입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출입구가 있는 광운로의 일부(135m)에 1차로를 추가 개설하고, 광운로에서 북쪽 출입구까지 폭 20m, 연장 145m의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지난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다.

당초 심의위원들은 교통량을 감안해 단지 동쪽 진입로 추가 개설이나 북쪽 출입구 인근의 효광초등학교 통학로 보도 설치 등 10여 가지가 넘는 조건을 제시했으나 업체 측이 이를 부분적으로 수용하거나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교통영향평가에서 단지과 접하는 도로 일부의 확장 및 신규 개설로 교통량을 상당부분 소화시킬 수 있어 아파트 건립에 따른 인근 도로



광주지역 최대 교통 혼잡지역인 광주 서구 광천동 일대에 내년 초 1천96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교통량 급증으로 체증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아파트 단지의 주출입구가 설치될 기아자동차 앞 광운로.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나 교차로의 서비스 수준은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있다. 이 평가에서는 인근 30개 도로와 12개 교차로의 서비스 수준을 분석, 이 가운데 도로 1곳과 교차로 2곳의 서비스 수준만 단계적 하락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 평가에서는 유입·출입 인구 중 약 50%가 승용차와 택시를 이용할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다시 각 시간대 별로 분산시켜 이 아파트 단지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교통량 자체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1천96세대가 거주하게 될 이 아파트 단지의 출퇴근 시(오전 8~9시, 오후 6~7시) 발생교통량은 각각 509대와 499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변 상인인 최모(45)씨는 "광운로는 기아자동차에서 나오는 차량, 운양동으로 출퇴근하는 차량, 버스과 트럭, 불법주정차 차량까지 뒤엉켜 출퇴근 시에는 언제나 막히는 구간"

이라며 "여기에 아파트까지 들어서게 되면 이 일대의 혼잡은 극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교통공학의 통계와 이전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 출퇴근 시 전체 아파트 단지 교통량의 35~40%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교통영향을 평가했으며 따라서 교통소통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청산가리 막걸리’ 계획 살인이었다

경찰 “범행 이틀 전 투입”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은 범행 발생 이틀 전 누군가 막걸리 병에 청산가리를 투입하는 등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모(여·59)씨 등 할머니 2명을 숨지게 하고 이모(여·75)씨 등 2명에게 부상을 입힌 막걸리에는 사건 발생 44시간 전 누군가 청산가리를 투입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막걸리를 마실 당시 색깔이 커피색이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라 막걸리에 청산가리 11.18g을 넣고 막걸리 색깔변화 정도를 확인해 범행시간을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의 막걸리와 같은 농도로 청산가리와 막걸리를 섞어 상온에서 보관한 결과 44시간 뒤에 커피색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4일 누군가

가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고 6일 새벽 이 막걸리를 숨진 최씨 집에 갖다 놓은 것으로 보고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원한 관계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문제의 막걸리에 들어있던 청산가리(11.18g)가 차사람의 10배가 넘는다는 점에서 누군가 살인의 사를 갖고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순천시내 막걸리 판매점 160곳과 청산가리 판매점 3곳 등에 대한 탐문수사를 벌였으나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한 수사 장기화마저 우려되고 있다.

또 청산가리는 일부 노점상에 의해 시골 장터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입처 확인 등 단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6일 오전 9시10분께 순천시 황전면 모희방근로현장에서 최씨 등 할머니 4명이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마셔 2명이 숨지고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나원침 (7855) 김중두



방화로 모친 살해 징역 7년

광주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배현태)는 14일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로 기소된 손모(4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손씨는 지난 3월 18일 밤 11시께 완도군 고군면 자신의 집에서 “가족들이 무시한다”며 기쁨을 뿌리고 불을 질러 어머니 이모(78)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여자 형제 채팅 고교생 돈 빼앗아

○인터넛 채팅 사이트에서 여자 형제를 하면서 고교생들을 유인해 금품을 빼앗은 10대 3명이 경찰서행.

○광주북부경찰청은 14일 채팅을 통해 금품을 갈취한 박모(18)군 등 3명을 공동공갈 혐의로 불발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박군 등은 지난 5월 25일 새벽 광주시 북구 한 초등학교 앞으로 J(18)군 등 3명을 불러내 폭행한 뒤 금잔디 등 시가 33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

○조사 결과 이들은 채팅 사이트에서 여자 형제라며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채팅으로 생애매를 시도하다가는 경찰에 적발된다”고 위협해 상습적으로 유혹비를 갈취.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기자증 돈 받고 팔아도 처벌 못해

사이비기자 처벌 규정 시급

일부 사이비기자들이 돈을 받고 기자증을 파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사이비기자 근절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1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최근 모 인터넷 언론 광주·전남 취재본부장 박모(50)씨가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음주단속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경찰관을 협박해 300만원을 뜯어내고 자사 기자 6명으로부터 5000원을 받고 기자증을 관 협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돈을 뜯은 데 대해 공갈 혐의를 적용했지만, 기자증 판매에 대해선 마땅히 적용할 법 조항을 찾지 못했다. 고심 끝에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개당 수십만원을 받고 기자증을 판 다른 사이비기자에 대해서도 법조항이 없어 내사종결을 해야했다.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가 입증된다면 ‘본인의 취업 의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자증을 이용해 관청이나 기업을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사이비기자들을 중심으로 기자증 거래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광주지법 최길수 특수부장은 “기자증 거래가 다수의 사이비기자를 양산하는 통로가 되고 있지만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다”며 “별도의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등 법 규정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위장결혼 베트남 여성 구속

광주지방경찰청은 14일 취업을 위해 브로커에게 거액을 주고 위장결혼한 베트남 여성 A(21)·B(23)씨에 대해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10월 베트남 현지에서 위장결혼 앞선 조직에 1인당 1천700만원을 건네고 올해 1월 입국해 모 업체에서 일하다 검거됐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근무 중 도박·음주사고...광주경찰 기강해이 도 넘었다

광주경찰의 근무기강 해이도 도를 넘어가고 있다. 근무시간 중 모텔에 모여 앉아 도박판을 벌이는가 하면 만취 상태에서 음주사고를 낸 경찰관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광산경찰 수사와 P(48) 경사를 상대로 검찰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경사는 지난 12일 밤 9시

20분께 광산구 삼정동 하남중앙모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9% 상태에서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앞서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P경사는 한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P경사를 중징계할 방침이며 경찰청의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따라 광산경찰서에 대해

집중감찰을 벌일 예정이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또 도심 한 모텔에서 도박판을 벌인 북부경찰 소속 Y(50) 경감 등 4명을 감봉 및 견책처분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Y 경감 등은 지난달 25일 오후 5시30분께 광주시 북구 매곡동 한 모텔에서 관동 16만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던 중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감찰계 직원들에게 불

합했다. 당시 Y경감 등 2명은 근무 중이었고, 나머지 2명은 비번이었다. Y 경감 등은 “단순히 밥값 내기 도박이었다”고 해명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Y 경감 등 2명에 대해 감봉 1~2개월, 나머지 경찰관 2명은 견책처분을 내렸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확실한 대책!!!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http://edu.ingang.go.kr>

3만원의 행복

경기가 어렵는데...
 엄마의 한숨까지
 아빠의 어깨는 더 처져 가는데...
 사교육비 반이라도 줄어드셨으면...

이유있는 선택...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이
 대한민국 착한 아들, 딸들의 소원을 들어 드립니다.

강남구의 우수한 교육인프라를 체험할 기회
연회비 3만원에 7,500강의 무료 수강

- 한국외대부속외고, 청심국제고 등 특목고 교사
- 유료사이트 1타 강사 등 최우수 강사진 직강
- 최고난이도과정 ‘골드레벨’ 강의 개설
- 수능, 내신, 중3내신, 대학별고사, 학습법
- 서울대, 연고대 선배들의 학습멘토링

고객센터 1577-9100

강남인강(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2004년 6월에 개국하여 현재 총 90만 회원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전환!!

일반직 특별채용 모집

향후 3년간 중앙부처 1만명 대상 특채선발
 사무기능직 5000명 일반직 된다!!

- 시험일자 : 행안부산하 10월 24일 시행
- 시험과목 : 행정학개론, 사회(2과목)
- 타, 중앙부처도 곧 시행예정

장 의 시 간 표

- 주말반 : 토·일요일 : 10:00~17:30분 까지 (주 과목당 7교시 2개월 완성)
- 교수진 : 행정학개론 임강석, 사회 정형윤교수팀

= 無等은 높은 합격률을 앞세워 갑니다. =

과외 • 주말반 : 7월 18일 10:00~
 ※ 수강료 : 2과목 완성 30만원(기간 : 2개월)

귀하의 꿈에 그린 정직·합격! 無等에서 잡아라!!

무등고시학원
 www.mdgosi.co.kr
 동부경찰서 뒤(동양생명 옆) ☎ 222-4560

무등빌딩임대

• 최상의 업무지역,
 • 금융지역, 상업지역
 • 지하철역세권
 • 신형 주차시설 완비
 • 중앙공급식 냉·난방
 • 탁월한 무등산 조망권

•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